

호우가 불러온 '골드러시'



▲ 캘리포니아 골드 컨트리 지역에서 채취된 사금. 사진=서울신문

캘리포니아에서 '제2의 골드러시'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신문'이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골드 컨트리 지역에 사금을 캐기 위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서쪽 경사면에 있는 이 지역은 지난 1월 기록적인 강우의 영향으로 강에서 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금이 채취되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곳에서 사금을 채취하고 있는 앨버트 포젤은 골드 컨트리에 속하는 도시인 플래서빌의 한 개울에서 "불과 20분 간의 채취 작업 끝에 찾아낸 사금이 100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자랑했다.

금은 물보다 19배나 밀도가 높다. 이 같은 특징 덕에 모래 등 흙을 체로 걸러내면 금을 발견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1848년 주내 서터스 밀에서 금광이 발견된 후 황금 시대가 열렸다. 이듬해 '포티나이너스'(49년에 온 사람들)로도 알려진 일확천금을 좇는 약 8만 명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기 시작한 이후 대부분 금이 고갈된 1853년까지 이 지역의 인구는 25만 명으로 치솟았다.

최근 금 가격이 급등해 많은 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채굴을 재개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차 실험장' 샌프란시스코

IT(정보기술) 서비스 산업을 선도해온 샌프란시스코가 자율주행 차량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연합뉴스'가 워싱턴포스트(WP)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계열사 '웨이모'와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며 자율주행 기술을 실험하고 있다.

처음엔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이프티 드라이버' (safety driver)로 불리는 운전자가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했지만, 최근에는 운전자가 없어도 낮 시간대에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 체증과 추돌 사고 등을 일으키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우려를 더하는 것은 응급 상황에서 이들 자율주행 차량이 오류를 내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교통당국에 따르면 화재 진압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소방호스를 밟고 지나가는 크루즈 자율주행 차량의 차창을 깨고 겨우 세우는 상황이 벌어졌다.



▲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주행 중인 웨이모 자율주행 차량. 사진=Waymo

그럼에도 크루즈 등 업체들은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샌프란시스코 도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샌프란시스코카운티 교통 당국은 캘리포니아주 정부 기관에 자율주행 차량 운행 확대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IT 업체들은 캘리포니아주 정부 기관들로부터 승인을 받아 자율주행 차량 등을 운행하고 있다.

워싱턴주, 반자동 소총 판매 금지

워싱턴주가 AR-15 돌격소총과 같은 반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시키고, 총기도 즉시 구입할 수 없게 했다. 또 총기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주는 제이 인즐리 주지사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서명과 함께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AR-15 돌격소총과 같은 반자동 총기의 판매와 제조, 유통이 금지된다. 30인치(76.2cm) 이하의 모든 자동 소총에 적용된다. 총기는 즉시 구입할 수 없고, 구입 전 안전 교육과 함께 10일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 총포사에 진열되어 있는 AR 계열 총기들. 사진=shutterstock

야한다. 이와 함께 총기 제조업자들이 미성년자나 총기 판매업자 등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통제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총기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워싱턴주의 총기 규제 법안 통과는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뉴욕, 메릴랜드 등에 이어 10 번째다.

백악관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을 현실화하기 위해 애써 온 인즐리 주지사와 의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